

최초의 조선 여성 문단인 - 운초 시의 특징

김명희*

1. 들어가며
2. 詩才 형성과 시 의식의 변화
3. 운초의 시 세계
 - 1) 自足과 自嘲의식
 - 2) 대상세계와 분리되는 감정
 - 3) 동류의식- 분리의식
4. 나오며

* 강남대학교 국문학 교수

국문초록

운초는 성천기로 詩名이 고향인 성천 西都로부터 출발하여 한양에까지 드날렸다. 운초는 기녀로 초반기를 보내고 연천공과 결혼 후 소실로 살면서 중반기를 보낸다. 그 후 시회의 모임인 소실들과의 교류를 통한 만년을 보낸 후 작고한다. 양반의 후예이기는 하나 기녀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과 비록 사대부의 소실이라고는 하나 50여 년의 나이차기 있는 연천공과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만 한 여성의 일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를 통해 형상화된 작품에서 나타나듯 기녀로서의 담대함, 당당함, 자긍심이 기녀의 품모였다면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서는 萎縮되어가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자족과 자조 의식을 동시에 서로 표출한다. 시적 한계에 다다른 기녀의 시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虛名이었다고 자조한다. 그나마 연천공이 죽은 후에는 더욱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의 시는 애상과 탄식으로 흐르게 된다. 그때 동류의식으로 기녀며 소실인 친구들과 詩會로 소일하며 친구인 경산에게 연천공에게 의지하던 것처럼 그의 시에 의지하여 차운하며 시간을 보낸다. 끝내는 병들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시만 짓고 살다가 이승을 하직한다. 그녀 시의 특질은 사대부와의 분리의식 속에서 시를 지었고 대상(객체)과의 세계에서도 합일하지 못한 채 분리되는 감정으로 그녀(주체)는 생활하였으며 동류의식 속에서 친구들과 벗하며 詩會에 몰입하였으나 점차 사회로부터는 철저히 소외되는 기녀 시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 文壇史에서 그녀는 여성 최초의 문단인이었다.

핵심어 : 자족의식, 자조의식, 동류의식, 분리의식, 여성 최초 문단인

1. 들어가며

운초의 성은 金, 이름은 芙蓉으로 成川의 명기이자 김이양의 소실이었다. 1) 19세기 전반기에 살면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민병도가 편찬한 『역대여류시선집』에 한시 240제 329수가 실려 있다. 운초는 그 詩才가 천부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운초는 황진이·이매창과 함께 ‘三大詩妓’²⁾로 꼽히기도 하고,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여성한문학사의 발흥기와 난숙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을 만큼³⁾ 인정받는 시인이었다. 그러나 詩妓로서의 명성에 비해 운초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운초의 시와 그녀를 소실로 삼았던 연천 김이양의 개인사를 참조하여 운초가 대략 1800년도 초에 태어나 1850년 이후까지 살았다고 추정할 뿐이다.⁴⁾

운초는 유가적 가풍이 엄연하였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아버지 秋堂을 여의고 작은아버지 일화당에 의해 훈육되었다. 어려서부터 시재가 있었던 운초는 시기로 이름을 날리다 대략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77세 이던 연천의 소실이 되어 그와 함께 고향 성천과 한양에서 15년간 생활하였다.⁵⁾

또한 운초는 동료 첩실들인 금원, 죽서, 경산, 경춘과 ‘삼호정시사’를 결성하고 시회를 열었다. 이 때문에 운초는 연구자들에 의해 최초의 여성문단인으로 평가된다⁶⁾. 조선시대 여성문인들의 활동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1) 기녀시절에는 秋水라는 이름도 썼다.

2) 박종수, 『운초시가연구』, 『대한유도학회논문집』 4, 1988, p.126.

3) 이숙희, 『조선조여류한문학사』, 김상홍 편, 『한국문학사상사』(계명문화사, 1991), p.778.

4) 김여주, 『김운초의 한시세계』(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박종수, 『운초시가 연구』, 『대한유도대학 논문집 4』, 1988.

5) 이혜순 외,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태학사, 1999), p.71.

6) 위의 책, p.1.

김지용, 김미란 공저, 『운초의 시와 문학세계』(삼정회, 1996), pp.426~427.

김미란, 「19세기 전반기 기녀, 서녀시인들이 문학사적 위치」, 한국고전문학회

음성적이며 개별적인 활동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하면⁷⁾ 운초의 시사활동은 매우 특별한 것이어서 그의 시적 특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운초의 시세계를 '즐겁고, 밝음⁸⁾', '긍정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태도⁹⁾', '기녀시의 암울함이 없고, 표현이 밝으며 청량하다¹⁰⁾' '활달한 성품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외향적 지향, 감정의 절제, 관조적 사색¹¹⁾'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자들 공히 운초의 생애가 비교적 평탄했으며, 높은 시재와 연천을 매개로 한 당시 사대부들과의 대등한 교류, 부유한 양반 생활 등이 그녀 시의 특질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문이 몰락하여 아전을 지낸 양반에 속했던 집안의 재주 많은 여식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으며, 기녀인 자신의 詩才를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남편 연천을 만났으나 무려 50여 년의 나이차가 존재하는 생활을 꾸려야 했던 삶을 '비교적 평탄한 삶'이라 규정하여 운초의 시세계를 '현실인식을 결여한 밝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의 시세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기생이자 소실이었던 같은 처지의 동무들과 모여 삼호정 시사를 결성하고 활발히 활동하면서 형성된 그들끼리의 동류의식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보통사람들과의 이질감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분적으로 八賤의 하나이면서, 법적으로는 양반이 복식이 허용되고, 양반들의 주거지인 四大門 안에서 살 수 있었고, 양반과 대등한 교양을 습득하였으나 끝내 그들과 합치될 수 없었던 기녀들이¹²⁾ 느꼈을 분리의식 혹은 소외의식을 운초만 느끼지

편, 『문학과 사회집단』(집문당, 1995), pp.292~295.

7) 김여주, 『김운초의 한시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p.22.

8) 이혜순, 앞의 책, p.12.

9) 이숙희, 앞의 글, p.778.

10) 박중수, 앞의 글, p.145.

11) 김여주, 앞의 글, p.159.

12) 김용숙, 『한국여속사』(민음사, 1990), pp.243~245.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운초 시의 특질을 그녀가 때로는 기녀와 소실로 때로는 양반으로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분리의식’ 혹은 ‘이중적 의식’¹³⁾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詩才 형성과 시 의식의 변화

운초가 시명을 드날리게 된 것은 작은아버지 일화당의 훈육과, 그녀를 소실로 삼은 남편 연천 김이양과의 화답시, 그리고 삼호정시사 여성 회원들과의 시사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양반가의 글을 아는 여식들이 그러하듯 운초 역시 家學으로 글을 깨우치고 시를 짓게 되었다. 특히 가난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일찍 고아가 된 운초는 작은아버지 일화당에게서 글을 배웠고, 그의 훈육을 통해 시명을 얻게 된다.

우리 집은 본래 유학하는 집	我家本治儒
대대로 향리에서 살았다네	綿世宅鄉里
아버지는 가난을 걱정치 않고	先君晚爲貧
있는 돈 다 털어 책을 사 모으셨네	龜勉從府使
<중략>	중략
내 일찍이 어린아이로 남겨져	夙余嬰孤露
길러내심이 오직 둘째 아버지 일이셨네	舍恤專父事

13) 분리의식이란 양반과 밀착되어 양반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기녀는 끝내 양반들의 현실적 삶 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들의 유흥을 위해 ‘사치노예’로서 양반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서 오는 괴리감, 또는 일상적 삶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자괴감 등을, 이중의식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이지만 양반들과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중적 의식을 말한다.

여위신 모습이 상하신 듯 하나	羸形視如傷
아름다운 교훈은 항상 귀에 들리네	嘉訓恒提耳
내 처음엔 탁문군, 설도의 재주 없었고	初無卓薛才
겨우 뿔자와 魚자를 구별 할 뿐이었는데	僅辨魚魯異
어려서 시중에 이름 날린 것은	冲年浪市名
공께서 내리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罔非公所賜

〈哀仲父一和堂〉

운초는 삼십 년 간 병을 안고서 백가서를 두루 섭렵한 작은아버지로부터 배웠기에 자신이 탁문군과 설도에 버금가는 시인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일화당이 운초에게 글을 가르치고 시명을 얻게 해주었다면 그의 재주를 인정하고 아껴준 사람은 운초의 남편 김이양이었다. 운초는 차운의 형식으로 남편 김이양의 시 창작법을 익혔다. 운초는 연천 김이양의 모든 시와 김이양과의 화답시 죽자시에서까지 차운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전적으로 연천의 시문학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찌하여 더 일찍 연천 문장 못 만났나	何事文章早不游
붉은 입술 비단 옷이 부끄럼 띄웠는 듯	丹峰錦繡正含愁
조화옹의 깊은 뜻을 그 누가 알았으리	造翁深意人誰識
일부러 느지막이 대 문장을 따르란 뜻	故待晚年筆力遒

〈敬次淵泉相公〉

위 시에서 보듯 운초는 연천을 좀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연천의 대 문장을 따르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극도로 연천의 문장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했던 운초는 남편 김이양이 죽자 백아절현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슬픔을 표하고 있다.

풍류와 기개는 산수의 주인이며	風流氣槩湖山主
경술과 문장은 재상의 재질이셨네	經術文章宰相材

모신 지 십오 년에 오늘 눈물 흘리노니 十五年來今日淚
한 번 끊어진 높은 덕 뉘 다시 마름질하랴 峨洋一斷復誰裁

〈哭淵泉老翁〉

50여 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5년을 함께 산 김이양은 운초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재를 알아주는知己였고, 기녀의 분내 나는 시세계를 고양 확장시켜준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운초로 하여금 당대의 문사들¹⁴⁾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매개자이기도 했다.

남편 김이양은 안동 김문의 원로로서 예조, 이조, 호조 판서를 거쳐 홍문관 제학, 좌찬성을 역임하고 나중에 봉조하에 추대된 명망가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조인영, 김조순, 정원용, 홍현주 등과 자주 교류하였고,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자하 신위, 그리고 중인출신으로 시명을 떨치던 추재 조수삼, 서얼출신의 시인 박옹 이명오 등과도 오가며 상당히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¹⁵⁾ '연천이 있는 곳에 운초가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늘 함께 다녔던 운초는 연천이 참여하는 시회마다 함께 참여하여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시세계를 펼치는 한편 그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여러 어른 술병 들고 밤중에 모였는데 諸公携酒夜相尋
뵈자하니 당대의 대단한 한림일세¹⁶⁾ 如見當時自翰林
미천한 몸 어찌 감히 시 쓴다 하리 賤子敢言詩畫癡
눈 속 매화 밝은 달이나 행여 알아주리 雪中梅月是知音

〈洛下陪諸公共賦 二首〉

14) 운초가 사대부와의 교류를 가진 사람은 미산, 곡구, 서어상공, 이용성, 옥호, 자각봉 등이며 미산과는 운자를 내서 시를 짓고 해곡과는 해곡 시에 화답하고 그 외의 시인과는 시적 교류를 한 것 같다.

15) 김미란, 앞의 책, pp.298~294.

16) 〈次谷口八韻〉, 〈奉和海谷〉, 〈次漢山〉, 〈贈谷山蓬壺仙〉, 〈敬次紫閣峰詩韻〉 등의 시가 문사들과의 교류를 펼친 그 예이다.

탄식하고 또 탄식하니	歎息復歎息
헛된 이름이 내 일생을 그르쳤네	虛名誤此生
홀로 시를 흉내내 그림인 양하고	葫蘆依畫樣
억지로 부르짖어 시구를 흘날렸네	嗚嘶強詩聲

〈奉和花史使君〉

위 두 작품은 연천을 매개로 한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에서 운초가 느끼는 심회, 즉 그들과 전적으로 동화하지 못하는 심리적 간극과 분리의식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준다.

반면 운초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모임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서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고, 시재를 겨루기도 하면서 쓸쓸한 만년을 함께 보낸 삼호정 시사였을 것이다. 운초, 금원, 경산, 죽서, 경춘 등은 금원의 별장인 삼호정을 비롯해 일벽정, 오강루, 압구정 등 서울의 여러 곳을 순회하며 시를 짓고 낭송하는 모임을 즐겼다.¹⁷⁾ 이들은 모두 기생 혹은 서녀 출신의 소실이어서 쉽게 동류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오강루에 올라 자신의 고단한 신세를 기러기 떼에 비유하여 백년 인생의 무상함이나 늘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기녀의 몸가짐을 노래¹⁸⁾하는 등 오강루 모임의 시에서는 주로 생애에 대한 허무의식과 기생으로서의 고단함 등을 토로한다. 이는 소설의 화려한 양반 생활에서 얻어진 밝음 속에 가려진 외로운 운초의 이중적 생활에서 비롯한 그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회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五江樓小集〉이다.

세월은 물 따라 가버려 흔적조차 없고	光陰逐水去無痕
질은 안개에 휩싸인 수양버들 문을 반이나 가렸네	楊柳烟深半掩門

17) 김풍기, 『조선여인의 노래』(동인서원, 1998), p.6.

18) 『五江樓』평생에 이 몸 신세 기러기떼 갈리듯 / 나무터 고단한 노래 뜻 모르고 들었노라.

술이 조금 취하니 白苧歌 부를 생각나고	薄醉纔思歌白苧
내 마음은 오히려 황혼임을 한탄하네	寸心猶自恨黃昏
석양에 나그네 돛 배 강기슭에 나란하고	斜陽客帆參差岸
먼 수풀로 돌아가는 구름에 마을이 어둡구나	遠樹歸雲黯淡邨
뜰에는 이슬 맑고 발은 아직 견지 않았는데	不捲庭露淒清廉
새벽 산에 뜬 달은 어찌 내 혼을 사르느뇨	四更山月奈鎖魂

〈五江樓小集〉

한양에서의 시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쓴 운초의 시는 성천이나 평양에서 지은 기녀로서의 연회시와는 사뭇 다른 어조를 보이는데, 삼호정 시단¹⁹⁾을 시화한 운초의 〈三湖亭晚眺〉라는 시에서 그 같은 양상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맑은 물이 고여 거울처럼 단장하고	清流端合鏡新粧
산 모양의 쪽진 머리 방초는 치마 같다	山學峨鬢草學裳
별포에 나는 새 떼지어 내려치고	別浦來翔無數鳥
물가에는 때때로 이름 모를 향기나네	芳洲時有不知香
松窓에 비친 달빛에 이불 되레 얇아	松窓月入衾還薄
오동 잎 필러일 제 이슬 더욱 반짝인다	梧葉風飄露更光
봄 제비와 가을기러기는 모두 신의 있을진대	春燕秋鴻都是信
미리 슬퍼하여 애태울 것 아니로다	未須迢悵枉回腸

〈三湖亭晚眺〉

위에 예시한 〈삼호정만조〉는 운초가 삼호정에서 지은 유일한 시이다.

19) 김지용은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삼호정 시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후에 「운초시 해제」에서는 '삼호정에서 늘 모였다고 하였는데 운초의 시를 완역하여 보니 일벽정, 오강루란 정자가 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삼호정 시단은 일벽정 시사까지 범위를 넓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여기서 운초는 젊게 화장한 기녀들의 모습과 봄 제비와 기러기도 신의가 있어 계절이 되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대들의 낭군들도 반드시 그리할 터이니 미리 애를 태울 필요가 없다는 비유를 통해 남성들의 사랑에 연연해 할 수밖에 없었던 기녀 의식의 일단을 드러낸다.

이처럼 한양에 입성하여 시회에서 읊은 시들은 서도에서 쓴 시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기녀 시절 지은 시에서는 기녀의 자긍심과 사대부적인 풍류의식 등이 고루 나타나²⁰⁾ 반면 여기서는 고향을 등진 채 사는 기녀의 모습, 이미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서 양반의 소실이 되어 살아가는 쓸쓸한 느낌과 인생 황혼기의 감회가 대부분²¹⁾이어서 운초 시의 특질로 이미 지적되었던 ‘명랑 쾌활’이라는 평가와는 다소 거리를 보인다.

따라서, 운초의 시를 ‘여장부의 시’²²⁾ 혹은 ‘긍정적이며 사대부적인 기절의 시’라고 한 평가²³⁾는 운초의 시 전체가 아니라 기녀 시절에 지은 〈登江仙樓〉를 비롯하여 〈溟城宴游〉 등 대동강, 모란봉, 연광정, 묘향산을 중심으로 한 연회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기녀 시절의 이 작품들에서 운초는 기녀가 연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자부하며 자신을 風光과 풍악, 춤과 어우러진 객관물로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반면에 오강루, 일벽정, 삼호정, 압구정 등을 순회하며 쓴 많은 시들은 다분히 애상적이어서 기녀와 소실로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후기 한 여성의 품과 마음이 어떻게 지쳐 가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20) 기녀시절 운초는 연회를 위해 모인 사대부들과 정자에서 시를 짓는데 기녀신분을 만끽한 담대함과 풍류의식을 보인다.

21) 〈洛下陪諸公共賦 二首〉야원 매화 그 형상이 가련한 내 꼴이라/ ...달 밝은데 어디 가서 옛 친구 만나라.

22) 김함득, 「역대여류 한시문」, 『국문학 논집 10집』, 1981, p.105.

23) 이숙희, 앞의 글, p.778.

3. 운초의 시 세계

1) 自足과 自嘲의식

운초는 〈雲楚堂〉〈自嘲答人〉〈自嘲〉〈自寬〉〈芙蓉堂〉〈自況〉 등의 작품에서 놀이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녀로서의 자의식을 형상화한다. 가무에 능하고 시재가 넘쳐 시기로서 이름을 날린 운초는 당당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주장한다.

정자 이름 四節이 도리어 의심스러워	亭名四節却然疑
사절이 아니고 의당 오절이라 해야 하네	四節非宜五絕宜
산, 바람, 물, 달이 서로 좇는 곳에	山風水月相隨處
다시 절세의 가인이 있으니까	更有佳人絕世奇

〈四絕亭〉

거문고, 노래, 시, 술, 그림	琴歌詩酒畫
인간 세계 또한 선계라네	人世亦蓬萊
강산이 기다려 주는 듯하니	江山如有待
꽃들이 새들이 시기하지 말라	花鳥莫相猜

〈自況〉

산, 달, 바람, 물과 함께 꽃과 새들이 시기할 정도의 가인이 함께 있으니 마땅히 오절이라 해야 한다는 시적 화자의 진술에는 연회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시선을 받고 사는 기녀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들어있다. 또한 〈자황〉시에서도 기녀가 있는 공간이 바로 선계라 자부하며 꽃이나 새들조차 시기하지 말라는 도도함이 배어난다. 또한 그녀가 함께 하는 술자리는 난잡하지 않고 운치가 있다.

지는 해 무산 아래 걸려 있고
그림자 모두 동쪽으로 향하네
난간 쪽으로 술자리 옮겨 잡으니
몸은 푸른 물결에 떠 있는 듯

殘日卦巫峽
群陰盡向東
欄邊移酒席
身在碧波中

〈倒影軒〉

성천에 있는 누각에서 술잔치를 벌이며 읊은 시다. 누각에서 바라 본 경치와 술에 취한 채 연회를 즐기면서 강루에 서 있는 자신의 몸이 마치 푸른 물결에 떠 있는 듯하다는 그녀의 도도함은 〈芙蓉堂〉 〈戲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의 자화상을 ‘연꽃 모양 사뿐사뿐 걷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사람들은 연꽃 안보고 나만 본다’고 진술하는 데서 연꽃 같은 기녀, 연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기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운초의 자기만족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그녀의 역할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한 소실로서의 운초는 奉祭祀나 接賓客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사대부가 여성들의 일상과는 달리 낮잠을 자거나 글을 읽으면서 소일하는 비생활인으로서 살아야 했다.

닭은 복사꽃 핀 지붕 위에서 울고
말은 버드나무 문 앞에서 우네
아무도 나에게 봄 술을 권하지 않아
봄날 책 던지고 낮잠을 자네

鷄鳴桃花屋上
馬嘶楊柳門前
無人勸我春酒
遲日拋書午眠

〈午眠〉

한때, 기녀로서 화장 고칠 새도 없이 바쁘게 몰아치던 때도 있었지만 소실이 된 지금은 아무도 자신에게 봄 술을 권하지 않는 일상사에서 운초는 단지 ‘할 일 없는 존재’일 뿐이다. 기녀의 옷차림이 더러워 곤장을 맞았

다는 기록²⁴⁾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생들이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을 위해 웃고 노래하고 시재를 선보이는 일 이외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상에서의 생활은 脂粉내는 유흥의 공간과는 달리 수치심을 자극한다. 그토록 자신의 긍지를 높여주던 시명 역시 술자리의 과장된 평판에 불과한 것인지 모른다는 느낌이 자꾸 자의식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한다.

성천에서 나서 자라 분칠하며 지내자니	生長成都粉黛中
글 잘해 탁문군이라 그 이름 부끄럽네	素心猶愧卓文風
허명의 소문나 사원 벼슬 귀에 가서	虛名浪得詞垣許
칭찬 편지 받고 보니 얼굴이 벌개져.	覽罷華牋鏡面紅

〈奉次淵泉公閣下〉

영감은 문장을 구슬처럼 다듬지만	宦史工雕鏤
저는 단지 연지근지 분칠 알뿐이네	但知脂與粉
글짓는 법 왕찬에게 배울 것이요	筆因王粲閣
시부는 사장처럼 숨은 재주 있어야지	賦爲謝莊隱

〈自嘲〉

운초에게는 일찍부터 시재를 칭찬하는 말이 쏟아졌다. 운초는 자긍심을 겸손으로 감추면서 연천의 글 솜씨가 마치 구슬을 다듬듯 하는 데 비해 자신은 여성이며 기녀라서 지분내를 숨길 수 없다는 ‘自嘲’ 의식을 표출한다. 조선 제일의 규수시인 난설헌과 비교해 볼 때 운초의 자조의식은 보다 더 두드러진다.

24) 김용숙, 앞의 글, p.244.

시는 화예부인과 어울리기 어렵고	詞難花藥併
문장은 어찌 난설현과 같으랴	文豈景樊同
허영은 참으로 이 내 몸을 속였구나	浮響眞欺我
빈번히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오네	頻繁到洛中

〈自嘲〉

결국 자족과 자조감을 오락가락하던 운초의 이중적 시 의식은 결국 자신이 '허영에 망쳐진 존재'라는 인식과 겹쳐진다. 중국의 시인 화예부인의 궁사와 조선 최고의 시인 난설현의 유선 세계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가졌던 것이다. 허영에 얼굴이 벌개지는 자괴감은 그 같은 자기 한계에 대한 자의식적 반응으로 보인다. 물론 운초의 겸손한 자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시에는 일정 정도 자조적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운초의 시 세계는 기녀와 소설세계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운초의 자부심과 낙천성, 당당함 등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태도와는 달리 이면에서 언뜻언뜻 새어나오는 이런 자조의식은 자족감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자괴감이 이중적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기녀 신분에서 양반가 소설로 생활하면서 생겨난 소외의식에서 분출된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대상세계와 분리되는 감정

운초가 기녀이자 소설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운초 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그만큼 운초 시는 기녀 및 소설로서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강변에 유리돌들 미끄럽게 옹기종기	江碾玻璃千頃滑
등불만 구슬처럼 누각에 둘러 있네	燈如奎壁一樓環

겨울밤 붉은 담요로 신선 음악 즐기나
이 몸은 인간 세상 고뇌의 존재

紅氈夜轉流仙樂
反省吾身在世間

〈降仙樓 四時吟〉

야윈 매화 그 형상이 가련한 내 꼴이라
세모에 고향생각 술은 덜 익어
어젯밤 봄이 온 줄 이미 알았건만
달 밝은데 어디 가서 옛 친구 만나랴

瘦梅如我可憐容
歲暮鄉愁酒未濃
知是前宵春已到
月明何處故人逢

〈洛下陪諸公共賦 二首〉

운초의 시에서 자연과 주체의 감정은 서로 걸들고 있다. 봄과 겨울에 느끼는 계절감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降仙樓 四時吟〉에서 겨울과 겨울을 바라보는 주체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심리적 간극이 존재하며 그것이 시적 화자의 고뇌를 형성한다. 화려한 붉은 담요로 신선의 음악을 즐기는 소설의 풍요로운 삶은 껍데기일 뿐 자신의 몸 자체가 고뇌의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운초의 자기 인식은 〈洛下陪諸公共賦 二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매화와 동일시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서의 매화는 겨울의 차가운 눈 속을 뚫고 피어나는 봄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매화는 야위고 가련한 꼴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매화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가 비유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운초는 자신의 존재를 표면적인 화려함과 이면적인 초라함의 괴리로 체험하고 있는바, 이는 기녀로서의 자의식과 연계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운초가 동료 기생들에게 주는 시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신분이 세상과 평등하지 않아
혼자 강남 땅을 활보하네

微之不並世
獨步江南境

꿈에 보고 생시에 또 보니
이것이 백낙천의 큰 불행일세

夢得又新得
樂天大不幸

〈戲贈詩妓〉

비파를 옆에 끼고 옥란에 기대니	斜抱琵琶倚玉蘭
복숭아 붉은 꽃 비 어지러이 흩어지네	桃花紅雨淅淅作
봄 아직 추우니 도화에게 이르노라. 자만치 말라	春寒寄語桃花, 莫謾
恨이 오히려 바람 맞기보다 더 클 것이니	恨猶勝似任風
정처없이 떠다님이 끝이 없으리	飄蕩太無端

〈寄桃花〉

위의 인용된 두 시는 운초가 시를 짓는 기녀들에게 주는 시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분이 평등하지 않으니 우리가 비록, 백낙천처럼 시를 짓지만 그 시 짓는 일이 불행의 시초이지 결코 백낙천과 같은 문장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운초는 외양상으로는 대상세계, 즉 사대부가의 삶의 방식에 적극 참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분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녀로서의 신분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도화에게 주는 시도 같은 맥락이나. 여기서 운초는 기녀도 화가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언제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해 맺힌 한이 광풍보다 더 할 것이니 지금의 현실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녀들에 대한 삶에 대한 경고 메시지만 셈이다. 이러한 기녀 의식은 기녀들의 宴會시에서도 확인된다.

이슬비 개이고 얽은 구름 비켰으니	小雨回晴淺露褰
단장한 미녀는 이별 슬픔 넋 나가네	新粧越女暗銷魂
놀잇배 노랫소리 강 언덕에 부딪치고	笙歌舟下清流壁
사또님들 유람마차 물가에 늘어섰네	冠蓋春迷相灑門
재자들의 들뜬 마음 강물처럼 넘치는데	才子風情江水漾

미인들의 서러운 심정 버들 꽃 형클린 듯	佳人愁思柳花繁
산하의 좋은 경치 사람마음 움직이고	山河物色移民志
봄 하늘 높은 구름 예부터 천금이네	雲視千金俗所存

〈練光亭春眺〉

이별의 슬픔에 기생의 녀이 나가도 행차는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진행된다. 비가 내리던 하늘도 맑게 개고 才子들의 들뜬 마음은 강물처럼 넘실댄다. 아무도 기생들의 슬픔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평양여자 앓혀놓고 잔치는 흥겹다	箕城女伴藹來茸
꽃가 노래 소리에 버들 아래 서로 만나	花外聞聲柳下逢
향기 풀 속 기린 자취 누가 찾으리	芳草誰尋麟馬跡
모란봉엔 봄바람이 간드러지네	春風只在牡丹峰
땅이 넓어 노래 부르다 목은 쉬었고	歌因地闊喉如澁
놀잇배 죄여 타고 여인단장 아직인데	妝被船催粉未濃
오늘밤 달 밝으면 어디서 머물건가	今夜月明何處泊
물결 타며 일싸안고 새벽종이 울리리	中流相顧五更鐘

〈浮碧樓春宴〉

평양기생을 앓혀놓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다. 노래를 하도 불러 목이 쉬었다는 사실과 여인 단장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놀이에 몰입하는 사대부들의 성급함, 그리고 달이 밝으면 놀잇배가 어디에서 머물까라는 표현에서 암시되는 性的 욕망 등이 그 잔치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기서 기생이 '목이 쉬도록'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녀에게는 놀이가 아니라 노동임을 의미한다. 운초는 평양을 서경악의 고장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⁵⁾ 강과 달과 어우러진 정자에 맑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이루어 흥겨움을 더해 가는데, 기녀들에게는 기녀들만의 서

25) 〈憶秦娥〉에서 희미한 속에 서경악 분명한데/ 서경악은 고운 노래요/ 절묘한 춤은 전각을 수놓네/ 라고 한다.

려움이 평양성의 興과 西京樂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듯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운초의 시 의식은 대상과 분리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운초는 자기 인식이 뚜렷하였으며 상실감에 젖어 생활하는 기녀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았다.

3) 동류의식- 분리의식

운초가 만년에 의지한 것은 시 짓는 일이었다. 남편 연천에 의지해서 양반사회와 교류하며 살았던 운초는 남편이 죽자 양반사회와도 인연이 끊어지고 그에 따라 사대부들과의 차운시 짓기 놀음과도 연이 끊어진 채 병들과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운초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것은 시 벗인 경산과, 경산을 비롯하여 비슷한 신분의 여성들이 결성한 시 짓기 모임인 삼호정 시회다. 삼호정 시회는 시를 짓고 낭송하는 분위기의 유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²⁶⁾ 기녀 출신의 소설로서 출신 성분이 비슷한 삼호정 시사 회원²⁷⁾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주도한다.

우리가 산천 따라 노니는 곳은	吾輩逍遙地
물 나뉘어 질편한 그 한쪽 불가	平分水一涯
수풀은 아침별에 더욱 개이고	樹姿朝更霽
산 기운은 저녁에 더 아름답다	山氣夕還佳
다락 위로 구름은 머리카락 스치고	樓過雲侵髻
뜰 안에서 걸으면 풀은 신발 덮는다	園行草過鞋
화창한 봄빛을 차마 어찌 보내랴	春光那忍遣
우리 규수 본래 정회가 많음이니	閨女本多懷

〈次上瓊山〉

26) 강명관, 『조선 후기 여성문학연구』(창작과 비평사, 1997), p.182.

27) 운초의 「戲題」에서 '오강루, 일벽정 詩社'라 하여 이미 운초와 경산이 시사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고 봄.

정이 많은 기녀들이 산천 따라 노니는 곳은 물이 있고 아침 햇살과 저녁 산 기운이 아름다운 곳이고, 다락 위 구름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뜰 안에서 걸으면 풀이 우거져 신발이 뒤덮이는 그런 한적한 곳이다. 그러나 그곳은 아름답긴 하지만 생생한 삶이 없는 비일상적인 공간일 뿐이다. 그야말로 '생활이 없던' 기녀들은 현실의 공간에서는 남들과 더불어 생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각자 양반들의 소실로 생활의 윤택함은 얻었으나 자식이 없었고, 가정 일상사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운초는 비슷한 처지의 벗들과의 동류의식을 통해 자신의 한을 풀어내고 있다. 특히 연천 다음으로 의지한 경산²⁸⁾과 주고받은 次韻 형식의 많은 시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次瓊山韻> <次瓊山寄示韻> <寄瓊山韻用臘月軸> <戲題- 右屬瓊山>²⁹⁾ 등은 같은 시제로 연속하여 쓴 시로, 연천이 세상을 뜬 후 느끼는 자신의 심회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운초는 자신을 '어항 속 봉어'에 비유해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자 '虛空'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슬회하고 있다. 이처럼 운초는 강력한 동류의식으로 同姓인 경산과 금원, 죽균, 등 삼호정 시사에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극심한 허무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 연천을 따라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천공 시에 차운한 시가 운초 시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연천에 기대면서도 연천에게서 분리된 의식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흠모하면서 고독하게 지내는 운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 닫고 달포간 사람 하나 못 보는데	閉戶兼旬不見人
세월은 어찌 저리 바퀴 없이 잘도 가나	年光何事去無輪

28) '경산은 文化인으로 花史 李尙書의 소실이다. 박식하고 음영에 뛰어나다'라고 금원의 『호동서낙기』에 실려 있음.

29) <戲題>에서 운초는 금영, 경산, 그리고 자신의 시를 나란하게 지었다.

인연 맺어 베푸신 몸 애써 마음 다스리고
 양반 가문 붙어살며 모든 것이 호화롭소
 풋잠 자고 일큰 취해 해 가는 것 서러워하며
 어린 시절 병 많아 봄 아직 모릅니다
 뜬 인생 만남 이별 어리 병병 정해지니
 마음속 이는 정회 세속 따라 살리라

祇緣形役勞心幸
 摠把豪華付逸民
 淺睡微酣偏昔日
 少時多病未知春
 浮生離合澤歸正
 肯使情根惹腸塵

〈敬次 1〉

뜰에는 바람 없고 대낮에도 문 닫으니
 가슴 가득 치민 정을 누 보고 말하리
 푸른 머리 반드시 시로써 늙겠으며
 식는 가슴 어찌하여 술로써 덥히리
 외로운 밤 달은 뜨고 잠 못 이루니
 五湖에 봄이 오면 냇이라도 달려가서
 지금껏 집안일랑 모두 다 내던지고
 갈매기와 짝지어 같이 살자 맹세하오

庭樹無風晝掩門
 滿腔幽緒向誰言
 蒼毛非必緣時白
 涼足如何借酒溫
 獨夜月明偏失眠
 五湖春漲暗馳魂
 從今掃却家人業
 去伴沙鷗失不諼

〈敬次 2〉

운초가 살던 당시 기녀들은 부자 집 소실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 운초 또한 연천공의 소실이 되어 호화롭게 살았다.³⁰⁾ 그러다가 연천이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자 연천과 함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고 있다. 연천은 항상 운초를 데리고 다녔으며 연천의 명사 친구들은 운초 校書, 운초 女史³¹⁾라 존칭하여 운초 시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 같은 높임은 연천과 함께 살았기

30) 운초는 50년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천의 소실이 된 때는 연천이 이미 喪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실 대우를 받았다.

31) 신위는 〈和雲楚女史韻〉에서 운초의 시와 낭간의 그림이 西都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했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천이 없는 빈 공간은 서럽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한 小室의 규방일 뿐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운초는 시와 술로 달래려 하나 역시 잠 못 이루니 함께 사는 것만 하겠느냐며 연천과의 영원한 동거를 하소하고 있다. 자신을 소실로 거두어주었던 연천을 제외하고 누가 운초를 현실공간에 묶어두는 끈이 되어줄 것인가. 결국 운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삼호정 여인들과 굳은 동류의식³²⁾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한다. 이러한 사회 활동은 조선 남성과 동류가 되지 못하는 기녀들만의 결집이고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분리되어 나타나는 자기 연민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의식은 조선후기 소실들의 문학에 표출된 한 양식으로 양반과 더불어 양반처럼 살다가 끝내 양반이 되지 못하고 만 소실이라는 특수계층 여성시인들의 삶의 표현이며 그들만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 후기 기녀이자 소실이며 시인으로 살았던 운초의 운명적인 삶을 형상화한 시 세계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 소외된 계층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던 운초의 연천공과의 숙명적인 만남, 그리고 연천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당시 명사로 꼽히는 양반 시사들과의 교류, 삼호정 시회를 중심으로 한 경산 금원 죽서 경춘 등과 교류 등이 운초의 시세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운초는 작은아버지 일화당에게서 글을 배웠고 그후 50년 연상인 남편 연천 김이양과 부부로 살면서 시세계를 확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한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대

32) 운초는 일벽정 詩友들은 모두가 좋은 친구라고 노래한다(一碧詩朋亦有緣).

부들과의 교류 속에서 운초는 오히려 기녀이자 소실로서의 신분적 한계와 소외를 깊게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으로 하여 운초는 연천이 죽은 후 시벗인 경산과 삼호정 시회를 중심으로 시 짓는 일에 골몰하는데, 이 시기에 나온 시편은 연천을 회고하며 병들어 가는 운초의 시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운초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비생활인으로 연천을 그리워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결론적으로 운초의 시세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재색을 겸비한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은 <사절정>과 <자황>에 서는 기녀의 풍모를 그대로 나타낸다. 그러나 시재에 있어서는 <자조>라는 시를 통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자괴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중국의 화예부인과 조선의 허난설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시적 재능에 대한 자괴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자족과 자괴의 모순된 감정이 운초 시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기녀 및 소실로서의 자의식이야말로 운초 시의 주조를 형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대상세계와의 심리적 분리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과거의 자기 경험을 환기시키는 기녀들의 자만에 대한 경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양반사회에 참여하면서도 그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기녀의 신분적 한계 인식, 표면적인 화려함과 이면적인 초라함의 괴리 체험이 운초 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만년의 운초 시를 특징짓는 요소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의 연대감으로서의 동류의식과 양반사회, 특히 연천과의 분리의식이라 할 수 있다. 연천의 죽음으로 양반사회와의 연을 잃은 운초는 한편으로는 삼호정 시회를 중심으로 친구들과 깊은 동류의식에 빠져 생활하며 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격리된 채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잇다가 남편 연천을 따라간다. '어항 속 봉어'의 시적 비유 속에는 자기 일생을 부자유와 허무로 규정하는 운초의 자의식이 집약되어 있다.

이로써 보건대, 운초 시는 기녀 출신의 소실로서 외양상으로는 화려하

고 풍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다간 조선 후기 험서린 여인의 시적 기록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김용숙, 『한국여속사』, 민음사, 1990.

허미자 편, 『조선조여류시문전집』, 1988.

김지용, 『역대여류한시문선』, 대양서적, 1975.

김지용, 『김미란 운초의 시와 문학세계』, 삼정회, 1996.

최상의, 『감수 조선 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1998.

강명관, 『조선후기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김지용, 「삼호정시단의 특성과 작품」, 아세아여성연구 제16집, 숙명여대아세아여성 연구소, 1977.

김미란, 「19세기 전반기 기녀, 서녀시인들의 문학사적 위치」,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박종수, 「운초시가연구」, 대한유도대학논문집 4, 1988.

이숙희, 「조선조여류한문학사」, 김상홍 편,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p.788.

김여주, 「김운초의 한시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Abstract

The First woman of the poetry association in the Chosun dynasty

— The characteristic of the Uncho's poem —

Kim, Myung-Hee

I want to mak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oem describing the fatal life of Uncho who lived as a Gi-nyeo, a concubine and a poetes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Uncho had to live her whole life as a member of the lower classes. Her destined encounter with Mr. Yeon Chun and the friendship with famous noble poets, such as Kyeong San, Keum Won, Juk Seo, and Kyeong Chun, through Samho-Jung, the poetry association becam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world of her poetry.

Uncho learned from her uncle Ilhwa-Dang. She got married to Mr. Yeon Chun, who was fifty years older than her. Through this marriage she enlarged the world of her poetry, but on the other hand she also keenly realized her limits.

Uncho had a correct understanding of herself through the friendship with the men of noble birth, and it made her feel more alienated.

After Yeon Chun's death, she concentrated more on writing poetry with her friend Kyeong San and the poetry association, Samho-Jung. But looking behind her husband, she left <Cheungsi> poetry as a self-portrait and finished her short life.

The world of her poetry were as follows;

Looks of Gi-nyeo appeared in the <Sajeol-Jung> poetry, <Jahwang> poetry satisfying herself. But dissatisfaction of her poetic talent was discovered in the

<Jajo> poetry.

Especially she expressed her sense of shame about the world of her poetry by comparing with Mrs. Hwa ye from China, and Huh nan seol-Heon from Chosun.

"Separated feeling from object" : She gave a message to her friends Gi-nyeo to be cautious in self-conceit.

Uncho spent her time with friends of the poetry association, Samho-Jung, and was immersed in consciousness of kind. On the other hand, she led a lonely and neglected life mentioning consciousness of separation.

In her poet given to Kyeong San, she concluded that her life was not free comparing herself to "fish in the fish bowl". She made <Cheungsi> poetry in the nihilism and passed away.

To conclude, Uncho is the regrettable woman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who had lived unhappy double life.

key words : self-sufficiency, self-sneer, consciousness of separation, regrettable woman, consciousness of kind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